

철학사

17 그리스와 로마의 회의주의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자, 오늘은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이 시대의 세 번째 철학 사조인데, 나머지 두 가지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주의는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등장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사실, 종교 개혁과 근대 과학의 발흥으로 인해 생겨난 인식론적 공백, 즉 종교 이외의 문제에서 교회의 권위가 상실된 그 공백 속에서 섉스투스 엠펬리쿠 스와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주의가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적 출발점은 항상 어떻게 회의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회의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데카르트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점은 섉스투스 엠펬리쿠 스가 피론주의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인데, 피론주의는 당시 회의주의 시대에 대한 지식의 주요 원천 중 하나였습니다. 섉스투스 엠펬리쿠스의 저서는 1560년 프랑스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1560년은 종교 개혁 이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그 시기의 한가운데입니다.

그래서 파스칼, 데카르트, 그리고 당시 프랑스의 주요 철학적 회의주의자였던 몽테뉴 등과 같은 인물들을 다룰 때 회의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회의주의 운동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 하기 위함 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키레네 학파 에서, 스토아 학파가 키니코스 학파에서 출발했다면, 회의주의는 제도와 전통의 권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와 일부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 및 회의주의가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의주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회의주의는 철학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나 방법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말기, 중세 시대 말기, 계몽주의 시대 말기 등에서 회의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스 출신의 피로 라는 그리스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는 물론 그리스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한 질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본질, 즉 사물 의 본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는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했듯 이, 감각은 변덕스러운 의견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주장하듯이, 추론은 언제나 주관적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 이란 , 동등한 무게를 가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논증 이란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그 입장을 반대하는 주장보다 더 큰 비중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이 B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과 상쇄되어 동등한 비중, 즉 동등한 논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지식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로스는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물에 대해 , 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판단을 유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판단을 보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 에포케(epoche)' 는 판단 유보를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는 20세기에든 계속 사용되었는데, 특히 유럽의 현상학 운동과 20세기 방법론 발전, 그리고 가다머와 같은 해석학 이론가들의 연구에 바탕이 된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 현상학 운동의 뿌리는 에드문트 후설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는 '에포케' 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 이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다른 근본 원리를 탐구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회의주의적인 용어죠. 판단을 유보하는 것.

피로의 요점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미리 단정짓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근거 없이 독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탐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성급한 독단에 빠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세 번째 질문은, 현실에 대한 그러한 태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는 결국 회의주의자가 되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회의주의의 가치는 일종의 평온함입니다. 적어도 번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평온함'입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하고 좋은 표현은 '마음의 평화'일 것입니다.

아는 것이 적을수록 걱정거리가 줄어든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무지가 행복이라면, 지혜로운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속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회의론자들이 이러한 마음의 평화, 이러한 고요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파테이아(apatheia)나 아타락시아(ataraxia)와 같은 대략적인 동의어를 아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파테이아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열정과 차별로부터의 자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아타락시아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치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육체적 평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헬레니즘 운동은 모두 추구하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헬레니즘 시대는 문화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걸모습을 만들어냈지만, 그 안에서 전통은 혼란스럽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가 도움이 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자, 카우프만 선집 491페이지를 보시면, 섉스투스가 회의주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491페이지 맨 아래 두 번째 열, 4장에 회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주의는 하나의 능력, 즉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이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태도에 가깝죠.

이는 어떤 경우에도 걸모습을 판단과 상반하는 태도입니다. 자, 당신이 내린 판단은 이렇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갈등이 생기죠.

결과적으로, 대상과 이유가 서로 대립하는 등가성으로 인해 우리는 먼저 판단을 유보하는 정신적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동요하지 않는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미묘한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회의론자는 스스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의론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자기 참조성 논증은 일부 형태의 회의주의에 대한 표준적인 반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오, 피론적 회의론자인 피론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모릅니다. 바로 그 모호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들은 회의주의와 독단주의를 구분했습니다. 모르더라도 독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또한 섹스투스가 언급한 또 다른 입장, 즉 학자들의 입장과의 구별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흔히 학문적 회의주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학문적 회의주의는 대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는 물론 플라톤이 아테네에 설립한 그의 학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아카데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신피타고라스 학파였던 스푸키푸스라는 사람이 아카데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신피타고라스주의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아카데미 전통 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정신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편에서 종종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이처럼 아카데미에는 회의주의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와 관련된 인물은 카르네아데스입니다. 카르네아데스는 감각 지각이 상대적이라는 절대적인 지식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플라톤도 그렇게 말했죠.

추론 과정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전제를 찾으려다 보면 무한히 전제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던 순환 논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론 과정, 즉 추론을 통해서만 확고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확고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직관, 즉 거부할 수 없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사실상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내게는 너무나 당연한데요."라고 말하면, 가장 간단한 반박은 "죄송하지만, 제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라는 겁니까? 그것은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신 자신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변증법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물의 본질에 대한 플라톤의 대안 가설 분석은, 문제를 확정짓기보다는 대안적 입장들의 동등성을 드러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카르네아데스는 지식은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카르네아데스의 사상에는 플라톤 학파의 영향이 충분히 드러나 있어서, 지식은 불가능하지만 의견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존재한다. 그리고 의견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카르네아데스는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확률.

물론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현대적인 수학적 확률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도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일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일 스트랫퍼드 센터에 쇼핑하러 갈 거냐고 물어볼 때처럼 말이죠.

그러면 당신은 "글쎄, 아마 아닐 거예요."라고 말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확률 계산을 해봤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지난 토요일들을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내일을 예측해 봤다는 것도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그런 종류의 일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보시다시피, 확률론이 있습니다. 확률론은 표현된 의견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카르네아데스의 경우, 신념과 의견을 인정 하고 수용하는 것이지만, 오류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입니다 . 오류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그래서 카르네아데스는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반면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고 회의론자들이 비판하는 지식은, 애초에 틀릴 가능성조차 없다고 주장하는 지식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식은 확실성이고, 믿음은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인식. 올리버 크롬웰이 주변의 독단주의자에게 한 유명한 말에는 오류 가능성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건대,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올리버 크롬웰이 하려던 것은 단순히 인간 판단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 판단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인간적 태도라고 주장한 것이죠.

카르네아데스는 회의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고대에는 실제로 회의주의자로 취급되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조차도 그를 회의주의자로 반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대의, 더 현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카르네아데스는 회의주의자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하듯 지식을 일종의 정당화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근거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틀릴 수도 있죠.

등등. 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와 같은 동시대 로마 회의주의자들은 회의주의 논증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논증의 유형. 이것들을 논증 양식 또는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은 논증의 형식, 즉 논증의 범주입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는 다섯 가지 유형의 논증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섯 가지 유형인데, 이는 아그리파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 가지 분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그리파는 이를 다섯 가지로 요약합니다. 다섯 가지 논증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상반된 견해를 근거로 한 논증입니다.

음, 그건 바로 등가 논증 이죠. 두 번째는 전제의 무한 퇴행 논증입니다. 그것도 낮익은군요.

셋째, 현상의 상대성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이것 또한 고전적인 논증 방식이죠. 넷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가설에 대해 지나치게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그것도 전형적인 예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장의 순환 논증을 지적하는 논증입니다. 논점 선취의 오류인 거죠.

회의주의를 뒷받침하는 이 다섯 가지 논증 방식은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한 번쯤은 이러한 비판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논증들의 총체적인 영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지식의 가능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형태와 불변하는 실재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원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네 가지 종류의 원인 모두에 대한 지식 말이다.

수학적 진리와 관계에 대한 지식. 심지어 논리 법칙에 대한 지식까지. 알겠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모순율에 대한 부정적 증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를 부정적 증명이라고 부른 이유는 긍정적 증명으로는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증명은 간단히 말해서, 모순율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 모순율을 부정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진술을 하려면 먼저 그것을 가정 해야 하니까요. 음, 그건 모순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회의주의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지식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 즉 회의주의를 옹호하는 논증들뿐만 아니라, 회의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전형적인 논증들도 발전해 왔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서 이러한 점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초기 철학 저서 중 하나는 《학계에 반대하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학계'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학계에 반대하며》를 읽을 때, 그가 모든 대학 교수나 학계 관계자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학문적 회의론자들에게 반대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예를 들어 가장 철저한 회의론자조차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려고 합니다.

설령 당신이 오류가능성을 받아들이고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해도, 틀리기 위해서는 존재 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라틴어 구절 "si"에 표현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결론적으로 나는 존재한다. 무엇이 떠오르지 않니?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니?

초창기 버전은 'dubito ergo sum', 즉 '나는 의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훔쳐왔죠. 네,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나 둘 중 하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의론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알 거나 모른다는 사실, 즉 어느 쪽인지 결정을 내릴 수 없더라도, 모순율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그래서 그는 회의론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의주의 에 대한 일반적인 반박 중 하나입니다 .

또 다른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아마도 가장 찾기 어려운 최초의 전제를 찾아내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들은 변증법을 통해 접근했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특정 종 전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제1원리를 추상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중세 시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

르네상스 시대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데카르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수학이 제1 전제를 찾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제1 전제 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 즉, 수학적 체계의 토대가 되는 공리, 자명한 진리를 찾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기초주의라고 부르는 인식론의 발전은 보통 데카르트에게서 그 기원을 찾는데, 데카르트에게는 당대의 회의주의 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이전 시대의 회의주의 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방식으로 첫 번째 전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촉발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시나요 ? 칸트 이후, 특히 지난 반세기, 20세기 후반에 인식론에서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기초주의와 회의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일종의 제 3의 입장, 즉 오류가능주의적 입장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지식을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완전한 확실성을 가진 지식을 추구하는 대신, 플라톤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지식과 믿음 사이의 완전한 간극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은 믿음의 특정 하위 범주가 됩니다. 믿음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와 로마의 회의주의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네요 .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밥.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믿으시나요? 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의미의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의미의 믿음이죠.

인식론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 신뢰, 또는 대인관계적 신뢰에 대한 믿음을 구분해야 해요. 후자는 의견에 더 가깝죠. 네, 네, 의견에 가깝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오는 믿음, 예를 들어 제가 아내를 믿는다고 말할 때, 저는 아내가 제가 믿어온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1940년대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내 의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원칙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플라톤의 의미에서 믿음이란 자신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그 의견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믿음, 즉 인식론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확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언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야 할 것이다.

수학적 증명 에서 원하는 것처럼 확실한 입증 가능성은 부족하죠 . 뭐, 그런 거죠. 네.

그래, 제시. 미안해. 경찰이 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할 거라고 예상했어? 내 말이 그거야.

네.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

완전한 회의론자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데는 신중을 기할 것 같습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들리니까요. 그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데 더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찾아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조차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찾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요? 다시 말해서, 피로 같은 사람에게 "아, 이거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는 항상 "아니요, 몰라요. 지금 제 심정이 그래요."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죠.

그건 의견일 뿐이죠. 아시다시피, 지식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회의론자에게는 손쉬운 도피 수단입니다. 아, 맞아요, 그는... 바로 그거죠.

네, 그는 그걸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어찌면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음, 저는 여전히 회의론자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 매력은... 음, 첫째로 논리적인 매력은 어떻게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을지 찾는 문제에서 오는 거죠.

확실히 아는 것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논거.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논리적 호소입니다.

제 생각에 심리적인 매력은, 세상에 101가지 다른 견해가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에서 특정 종파적 견해를 고집하는 혼란과 독단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견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죠. 아, 제발, 좀 마음 편하게 해 줘요.

아시다시피, 논쟁 중에 궁지에 몰렸을 때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훨씬 쉽죠. 물론, 너무 단순화한 설명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심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주목해야 할 점은, 소크라테스 이전 200년 동안 누구도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던 논쟁들이 결국 소피스트들의 회의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를 포함한 그리스 철학 체계의 발전은 일종의 민주적 유물론과 같았는데, 이 또한 "저 사람들도 모르는 게 뭘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라는 태도를 낳았습니다. 이해 되지요? 바로 회의론입니다.

마치 카페테리아 줄처럼 다가올 때, 여러분도 그런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53개의 질문에 대한 101가지 가능한 답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할 때,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면서 "내가 왜 굳이 이걸 읽어야 하지?"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에요. 이해 되지요? 바로 그게 회의주의의 심리적 매력입니다. 제가 철학사를 카페테리아처럼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는 철학사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유신론자로서 역사의 섭리를 믿기에, 철학사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떤 결과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믿음과 완전히 상반되는 일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적 역사 철학을 가지려면, 기독교적 철학에 기반한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상의 역사는 밀의 역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 그것들은 함께 자라납니다. 함께 자라면서 서로 섞입니다

잡초를 너무 많이 뽑으려고 하면 밀까지 뽑아버리게 되죠. 제 생각에 이게 기본적인 비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사상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가 예전에 프랜시스 웨퍼가 펼치는 것을 보고 들었던 견해인데, 아마 휘튼 대학은 아니고 근처 다른 기관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략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서 플라톤 이 틀렸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토아학파가 등장해서 그건 틀렸고 이게 옳다고 주장했죠. 또 에피쿠로스학파가 등장해서 그것도 틀렸고 이게 옳다고 주장했고요. 아시다시피, 철학의 역사는 온통 오류의 연속이었어요.

제 생각엔 그건 오해인 것 같아요. 그들은 상호 관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공통점, 보존된 것, 그리고 사라진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아시 겠죠? 그건 철학사를 원자론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비관적인 관점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 특히 인간 지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그렇게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역사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즉 단선적인 진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 온전한 진실, 그리고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건 19세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낙관주의죠. 헤겔은 자신의 철학을 모든 철학을 종결짓는 철학으로 여겼고, 따라서 이후의 모든 철학은 헤겔의 철학에 대한 각주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역사관과 인간 지성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중간에, 마치 알곡과 가라지 의 문제처럼, 제가 다선형 발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평행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철학적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케이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이상주의, 형이상학적 이상주의, 유물론 또는 자연주의, 그리고 유신론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세계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통 자체도 다원주의적 전통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읽어보세요.

각각은 다원주의적 전통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관념론, 다양한 종류의 철학적 자연주의, 다양한 종류의 유신론이 생겨납니다. 어느 한 시점에 여러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주요 유신론 종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그것입니다.

그 각각의 분야에는 신학적 세분화도 있으니, 온갖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 공통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철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관점을 고려할 때,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과학사의 발전입니다. 과학사에는 일련의 과학적 모델들이 존재하죠.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은 그리스 과학, 피타고라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영향을 받아 형태와 물질을 강조합니다. 익숙하시죠? 이 과학적 모델은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 혁명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기계론적 모델인 모델 2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2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장 이론 등 보다 유기적인 상호관계 모델, 즉 과정 모델에 밀려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각각의 관점들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이는 각 세계관 전통에 걸려져 반영됩니다. 그 결과,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상주의가, 계몽주의 시대 에는 기계론적 모델과 결합된 이상주의가 나타납니다 .

19세기에는 보다 진화론적인 모델을 가진 이상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전통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다선형적 발전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과학 모델과 함께 나타나는 방법론에 공통적인 투입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이 서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많은 공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고 특정 사항에 동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사의 모습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단순한 논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19세기의 진화론적 관점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죠.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납니다.

다선형 발전. 다음 주에 길슨의 책 2장, 『중세 철학의 정신』을 읽어보라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슨 길슨의 책은 그가 193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했던 기포드 강연을 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포드 강연은 종교 사상에 관한 강연 중 가장 권위 있는 강연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중세 철학에 대한 일련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유럽에서는 "기독교 철학이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이 논쟁은 프랑스 철학자 에밀 브레히어가 프랑스 학술지 《형이상학 및 도덕론》(Revue de la Métaphysique et de Moral)에 발표한 논문에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는 그 논문에서 철학은 중립적이지만 기독교는 헌신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것이라면 철학이 아닙니다. 브레히어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적 기초주의자였고, 그것이 온갖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반응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길슨은 당시 기포드 강연을 마치고 출판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책 앞부분에 몇 장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장 중 하나를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철학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아주 많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세요."

사실상 그는 기독교 철학이란 기독교적 의도와 방향 감각을 가지고 행해지는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네. 이번 달 말에 열리는 철학 학술대회는 중세 철학이 20세기 철학적 문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 중세 기독교 철학 의 공헌에 관한 책 입니다. 꽤 괜찮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없었겠죠. 음, 제 종말론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군요. 저는 전천년설 신봉자입니다.

그가 억지로 하나로 합치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상주의에도 눈물뿐 아니라 마약 같은 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 그는 잘 해결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확 해야 할 것들을 수확하면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질문을 비웃으려는 건 아니지만,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신학은 역사 철학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제게 결국 어떻게 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봐요, 저는 새천년을 기독교 사상이 이전에는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철학적 번영의 시대로 봐요. 네, 네. 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나 이 책을 아시나요? 조금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르프의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의 이성' 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한 분도 모르신다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서점에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어요. 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니콜라스 월터스토르프의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의 이성』 . 아, 책 제목은 칸트의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의 종교』 를 패러디 한 거예요 .

볼터스토르프의 저서,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의 이성』 . 자, 순서를 바꿔서 말해볼게요. 볼터스토르프의 책은 어떤 학문 분야에서든 이론의 형성과 비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론 형성, 이론 비판. 그리고 이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이론이 설명하는 데이터, 즉 우리가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론, 다른 신념, 즉 그가 '통제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제 신념이란, 우리가 다른 주제에 대해 생각해낼 이론의 종류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다른 신념과 모순되는 이론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론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론은 단순히 경험적 일반화가 아니라, 개념과 이해의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의 요점은 세 가지 대안적 이론과 관련하여 세 가지 서로 다른 통제 신념 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통제 신념 체계, 즉 이론 1과 이론 2는 서로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흥미롭게도 이론 2는 CB2와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론 3은 CB2와는 양립하지만 CB1과는 양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T1은 T3와 마찬가지로 CB3와도 호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독교적 신념, 즉 통제 신념 체계 내에서 CB1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제시하는 이론을 고수하거나 고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몇몇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종종 공통된 입장을 취하죠. 그러니까 그가 '통제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과 제가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 즉 통제 신념과 이론 사이의 관계는 엄격한 함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T1만이, 오직 T1만이, 다른 어떤 것도 CB1과 양립할 수 없다는 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CB1의 관점에서 볼 때 CB3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알곡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처음 말한 교부께서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어디에 있든 흩어져 있는 진리의 조각들을 모아 원래 속해 있던 전체의 몸체에 다시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온갖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말이 거짓인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죠. 자, 이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은혜라는 개념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햇살을 비추 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어떤 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말했듯이,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취줍니다. 로고스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마도 그 빛의 정도는 각기 다를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질문하고, 의의를 제기하고, 함께 고민해 보세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 얻어가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잊어버려도 좋지만, 사상사, 나아가 모든 역사, 그리고 우리 시대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고등교육을 받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철학사가 바로 이러한 패턴과 다선적인 흐름을 아름답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